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비트컴퓨터(032850)

소프트웨어/IT서비스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이진영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컴퓨터(032850)

독자적 S/W 기반의 의료정보서비스 전문기업

기업정보(2021/01/01 기준)

대표자	조현정, 전진욱
설립일자	1985년 04월 18일
상장일자	1997년 07월 04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의료 처방 전달 시스템, 병원 의료보험 청구 시스템
주요제품	

시세정보(2021/04/22 기준)

현재가(원)	9,98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659
발행주식수	16,623,293
52주 최고가(원)	15,600
52주 최저가(원)	8,250
외국인지분율	1.62%
주요주주	조현정

■ 디지털 의료정보서비스 선두주자

비트컴퓨터는 디지털 의료정보서비스 전문회사로,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정보사업, 디지털헬스케어사업 및 IT교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코스닥 상장 이후, 의료정보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여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최근 병원 내 DB 운영관리 비용 증가, 늘어나는 환자 데이터, 보안, 언택트 이슈 등으로 의료기관의 클라우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와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S/W 기술력 기반의 클라우드 패키지를 개발하는 등 의료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의 애로사항이던 서버, 인프라, S/W 및 사용료 등 문제를 클라우드 패키징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기관 규모별 맞춤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 언택트 시대에 따른 고도화된 디지털 의료정보서비스 확대 전망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대,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요인은 의료 시장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COVID-19 이후 가속화된 언택트 현상은 개인 맞춤형 원격서비스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국내·외 의료정보시스템 시장은 2018 ~ 2021년 동안 약 10%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원격의료 시장도 중국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의료정보 S/W 개발업체 인수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비트컴퓨터는 중형병원(병상 수 30 ~ 100개)과 대형 약국을 위주로 EMR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이며 중형병원 내에서는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정보서비스사업을 통해 내수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왔으며, 해외 13개국에도 진출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확장으로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328	2.7	(22)	(6.6)	(2)	(0.7)	(0.6)	(0.4)	33.3	(14)	2,558	N/A	2.0
2019	374	14.1	61	16.3	71	19.0	15.6	12.0	27.4	427	2,982	10.2	1.5
2020	373	(0.3)	55	14.6	65	17.4	12.5	9.7	29.1	389	3,324	28.5	3.3

기업경쟁력

디지털 의료정보서비스 전문기업

- 의료정보 분야의 선두
 - 의료정보 분야에서 30년 이상 축적해 온 레퍼런스를 통해 사업 노하우 및 전문성, 다수의 병원 네트워크 확보
- 의료정보, 헬스케어에 특화된 기업
 - 병원솔루션, 의원솔루션, 약국솔루션, U-헬스케어, 공공보건, 의료IT 교육 등 의료 관련 ICT 사업에서 활약

전문가 양성을 통한 맨파워 구축

- 150여 명의 전문가 조직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 2020년 기준, 종속회사포함
- IT교육사업을 통한 인력양성
 - S/W 전문기업의 명맥을 잇는 IT교육사업을 통한 인재양성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공급
 - 의료기관 및 약국 등 규모별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 개발
-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 의료정보 분야의 경험 및 기술력 기반으로, 응급 모니터링 시스템, 원격의료시스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제품군 보유

주요제품

- bitnix HIS
 - 중대형 규모 의료기관의 솔루션인 통합의료정보시스템
- CLEMR 클레머
 - 국내 최초 중소병원 클라우드 패키지 솔루션
- bitnix Cloud
 - 국내 최초 요양병원 클라우드 패키지 솔루션
- BIT DrugInfo
 - 약품정보 콘텐츠

시장경쟁력

38년 업력, 의료정보솔루션 선두 기업

- 의료정보솔루션 업계 선두
 - 의료정보솔루션 > 병원급 시장점유율 1위
 - 의료정보솔루션 > 의원급 시장점유율 2위
 - 약국솔루션 > 대형전문약국 시장점유율 1위
 - 서비스 > 약품정보사이트 점유율 1위
 - 서비스 > 적정청구 유도서비스 점유율 1위

세계 시장 진출

-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13개국 구축 실적 보유
 - 국내 시장에서 검증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
 - 우크라이나, 이라크,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 몽골, 브라질, 태국 등 해외 구축

최근 변동사항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 자인컴 인수
 - 2020년 6월, 의료정보관리 S/W 회사 인수
 - 포스트 COVID-19 시대 대비 및 시장 재편 대비

의료 패러다임 변화

- ICT 융합을 통한 융합·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 개인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변화
 - 헬스케어 산업 진화: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



I. 기업 현황

디지털 의료정보서비스의 고도화, 비트컴퓨터

비트컴퓨터는 의료정보사업, 디지털헬스케어사업 및 IT교육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디지털 의료정보서비스 전문기업으로 독자적 S/W 기반의 의료서비스 사업을 진행 중이다.

■ 개요

비트컴퓨터(이하 동사)는 의료정보사업, 디지털헬스케어사업 및 IT교육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1983년 8월에 설립 후 1997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동사 매출의 대부분은 의료정보사업을 통해 실현 중이다(2020년 71.53%). 동사의 202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 155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표 1. 기업현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회사명	비트컴퓨터	창업주	조현정
설립일	1983년 08월 15일	대표이사	조현정, 전진욱
자본금	8,311백만 원	임직원 수	155명(2021년 03월 기준)
발행주식 총수	16,623,293주(2021년 03월 기준)	자회사	(주)자인컴
상장일	1997년 07월 04일(코스닥)	주요매출처	국내·외 의료기관 (병원, 요양시설 등)
지식재산권 (특허)	국내 34건, 해외 2건		

* 출처 : 사업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주요 관계회사 및 최대주주

동사의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조현정으로 동사의 지분 24.28%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조현정재단으로 2000년 설립된 공익재단이며, 대표이사 조현정이 사재를 출연하여 장학사업 및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사의 관계회사는 국내 기업 (주)비트인테크, (주)비타임, (주)비트플렉스로 동사의 소유지분은 [표 2]와 같다.

표 2. 주요주주 및 관계회사 현황

주요주주	지분율(%)	관계회사	지분율(%)
조현정	24.28%	(주)비트인테크	100.00%
조현정재단	0.82%	(주)비타임	100.00%
신현미	0.23%	(주)비트플렉스	29.25%

* 출처 : 공시자료(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대표이사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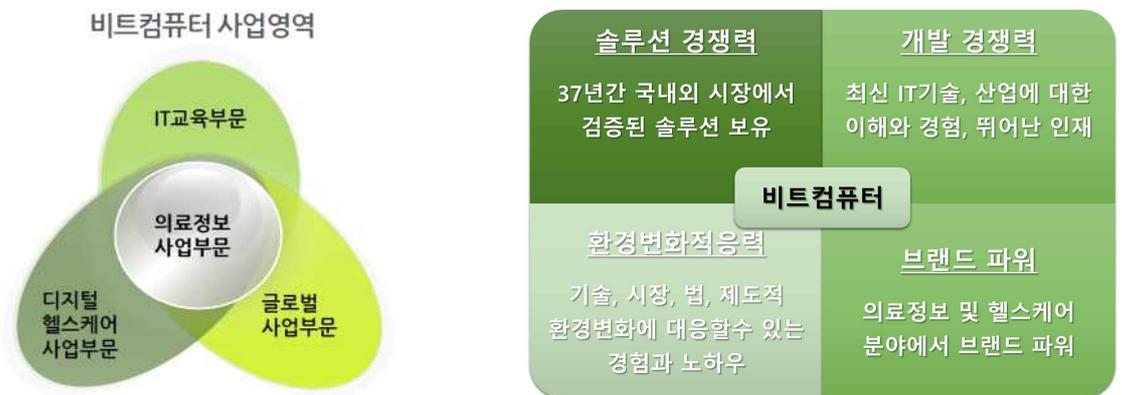
동사는 조현정, 전진옥 대표이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조현정 대표이사는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전공자로 한국벤처기업협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전진옥 대표이사는 2005년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학 박사학위자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시스템 공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동사의 연구소장을 거쳐 대표이사 취임 후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다.

■ 주요 사업 및 기술 역량

동사의 주요 사업영역은 의료정보사업부문이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 의료정보서비스 분야의 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IT교육사업을 진행하여 사회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동사는 의료기관의 클라우드 수요 증가에 맞춰 클레머(CLEMR), bitnix Cloud 등 클라우드 패키지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1. 사업포트폴리오 및 경쟁력



* 출처 : IR자료(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동사는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개선하여 사업 안정화에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병원급 시장점유율 1위, 원격의료 구축실적 1위 및 해외 13개국 구축실적 등 사업 실적을 달성했다.

표 3. 주요 사업 실적

의료정보 사업부문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부문	글로벌 사업부문	IT 교육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정보 솔루션 - 병원급 시장점유율 1위 - 의원급 시장점유율 1위 약국솔루션 - 대형전문약국 시장점유율 1위 서비스 - 약품정보사이트 점유율 1위 - 적정청구 유도서비스 점유율 1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헬스케어 구축 실적 1위 - 913개 기관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2018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13개국에 구축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공헌 목적 - 취업 연계 고급 프로그래머 양성교육

* 출처 : IR자료(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체계적인 조직력을 통한 기술 대응력 확보

동사의 조직구성은 크게 3개 본부(의료정보사업본부, 신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1개 실(기획실), 1개 사업부(솔루션사업부) 및 1개 센터(비트교육센터)로 이루어져 있다.

동사의 주요 사업분야인 의료정보사업본부는 의료정보사업부, 병원정보사업부, 디지털병원사업부 및 메디전트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솔루션사업부는 닥터비트사업부, 약국정보팀 및 드림인포팀으로 나뉜다. 신사업본부는 기술연구소, 디지털헬스사업부, 해외사업부, 의료ICT팀 및 비트케어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IT 인재를 양성하는 비트교육센터가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조직 구성도



* 출처 : 동사 홈페이지

■ 사업 수익구조

동사는 의료정보사업을 통해 대부분의 매출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밖에 IT 교육부문은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및 글로벌 시장 등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림 3. 사업 수익구조



* 출처 : IR자료(2020)

■ 제품별 매출 비중

동사의 지역별 매출 비중은 국내(96.3%) 및 해외(아시아, 3.7%)로 나타났으며, 사업군 매출 비중은 의료정보사업 중 의료정보시스템이 64.41%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4. 2020년 제품군별 매출 현황 및 비중(단위: 백만 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목	매출액	비중	
의료정보사업	의료정보시스템	제품 및 상품매출	S/W 및 H/W	24,015	64.41%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상품매출	S/W 및 H/W	2,654	7.12%
	소계			26,669	71.53%
교육사업	교육수입	-	8,996	24.13%	
임대사업 등	임대수입 등	-	1,616	4.34%	
합계			37,282	100%	

* 출처 : 공시자료(2021)

II. 시장 동향

코로나19의 언택트 환경에 따른 디지털 의료정보서비스 확대

의료정보산업은 ICT 기반의 디지털병원 구축을 넘어, 유·무선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고도화된 정보시스템으로 발전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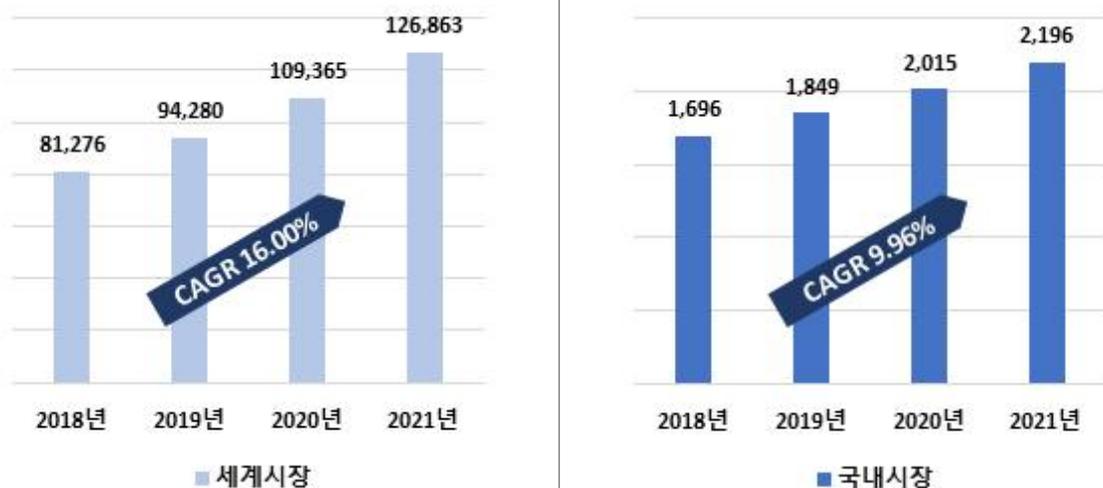
■ 의료정보산업

동사가 속한 의료정보산업은 의료와 ICT의 접목으로 특정 지을 수 있으며, 현재 국내 의료정보산업은 ICT 기술의 발달로 의료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ICT 기반의 디지털병원 구축을 넘어, 컴퓨터, S/W, 의료기기, 콘텐츠 및 서비스 등 유·무선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고도화된 정보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의료 정보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단계에서 IT 기술과 의료 및 서비스의 융합 강도가 높아지면서 IT 기반 의료기기 및 장비, S/W, 서비스 개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 의료정보산업 시장 규모 및 전망

의료정보산업은 서비스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 확대로 인해 개인건강기록(PHR) 및 유전자 검사 등을 활용한 확장된 개인 맞춤형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의 중요성도 새롭게 증대되고 있다. 세계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16.0%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시장도 2017년 약 1,549억 원에서 2019년 약 1,849억 원, 2021년에는 2,196억 원까지 매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국내·외 의료정보산업 시장 전망(단위: 억 원, 백만 달러)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확대

병원급 의료기관의 EMR(전자의무기록) 도입률이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형 병원은 솔루션 교체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고도화 및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형 병원 및 요양병원에서의 서비스 경쟁도 치열해짐에 따라 EMR 도입률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8월 의료법이 개정되며 의료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이 허용되었다. 한편 고도화되는 IT 인프라를 병원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발생하는 많은 투자비,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 데이터 및 보안의 이슈 등은 클라우드 도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한 시장은 의료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EMR 외에 부가 솔루션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정부는 의료보험청구 S/W 인증제에 이어 EMR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1월에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의료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 서비스, 산업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그림 5.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의 기대효과



* 출처 : IR자료(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디지털 헬스케어란 IT 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의료 환경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된 기존의 의료기관 중심의 서비스에서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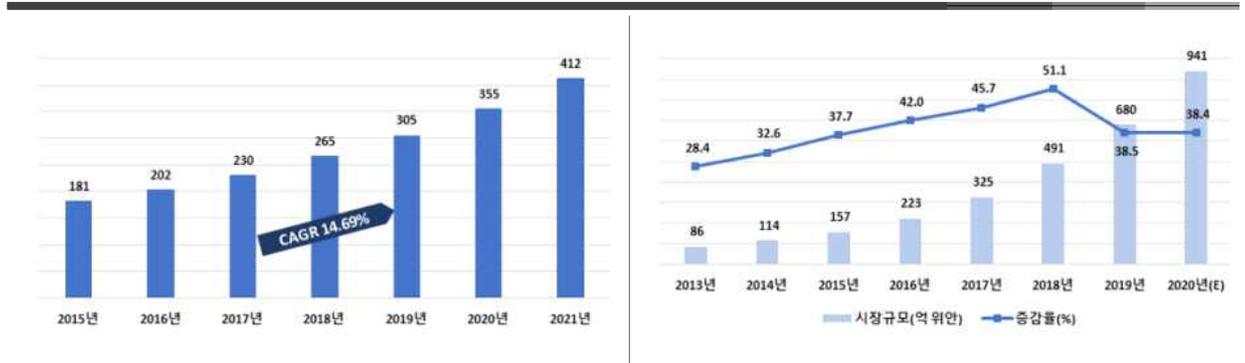
동사는 의료정보 분야의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고객으로 확보했으며, 사업에 필요한 솔루션을 라인업하고 있다.

▶▶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 및 전망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미래 고성장을 이루며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적으로 관련 기술의 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다양한 시장과 서비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181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4.69%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여 2021년 412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건의료시장 확대 속에서 지난 5년간 30% 이상의 성장을 거듭해 온 중국시장은 COVID-19 사태로 새로운 투자 분야로 부상하며, 2020년 9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세계 및 중국 원격의료 시장 전망(단위: 억 달러, 억 위안)



* 출처 : Statista(2019), 첸잔(前瞻)산업연구원(2019),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 확산

2020년 전세계를 강타한 COVID-19 팬데믹은 전세계 원격의료,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미 원격의료의 허용되고 있던 국가를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McKinsey: COVID-19 이후 미국 원격의료 이용 50 ~ 175 배 증가, Mueller: 영국 원격의료 매주 2배씩 증가)

현재 법 및 규제에 의해 시장성장이 더딘 국내 시장에 반해, 대다수의 국가는 시장 진입을 넘어 본격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의 도래,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 서비스 영역의 확대, 감염병 팬데믹 등 사회적 이슈가 존재하는 만큼 규제 완화가 진행된다면 IT 기술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장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Ⅲ. 기술분석

원격의료를 포함한 고도화된 디지털 의료서비스 제공

동사는 의료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U-health 시장 및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 의료정보서비스 정의 및 분류

의료정보서비스는 의료·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환경, 생활습관에 관한 데이터를 ICT 기술을 이용하여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및 시스템 기술을 총칭한다. 의료정보시스템은 의료진의 진료 현황부터 의약품 관리, 재무관리, 환자관리 및 각종 의료 영상정보, 병원 행정 업무 등을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의미한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단 및 치료 과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시스템과 솔루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의료정보서비스에는 EMR(전자의무기록), OCS(처방 전달시스템), PACS(의료영상 저장 및 전송 시스템) 등의 의료정보시스템이 포함된다.

표 5. 의료정보서비스 데이터의 종류 및 동향

구분	관리자	설명	동향
개인 유전정보	유전체 분석 서비스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약 30억 개의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 존재 개체 간 약 0.1%의 차이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체 분석비용 2000년대 초 9,000만 달러였으나, 2017년 100달러로 하락 2016년 기준 79,110건의 유전체 정보분석 프로젝트 완료
개인 건강정보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앱 또는 IoT 디바이스로 수집되는 라이프로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디바이스와 서비스 증가
전자의무 기록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의 모든 진료정보를 전산화하여 입력, 저장, 관리하는 형태 - 예 : 진단정보, 처방자료, 처방결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적으로 디지털화 가속
국민건강정보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 및 보험료, 진료내역, 건강검진결과, 의료급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경우, 단일 건강보험 체계를 갖고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 관련 빅데이터가 공공기관에 집중

* 출처 : 삼정KPMG(2018)

■ 스마트 헬스케어는 지능형 의료 솔루션으로 발전

스마트 헬스케어는 ICT 기술과 의료 기술이 융복합되어 기존의 헬스케어 개념을 확장시켰으며, 의료용 제품 중심에서 개인 의료와 연관되는 다양한 데이터와 서비스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거쳐 다양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유기적 결합하여 진화하는 지능형 의료 솔루션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독자적 클라우드 솔루션의 기술 경쟁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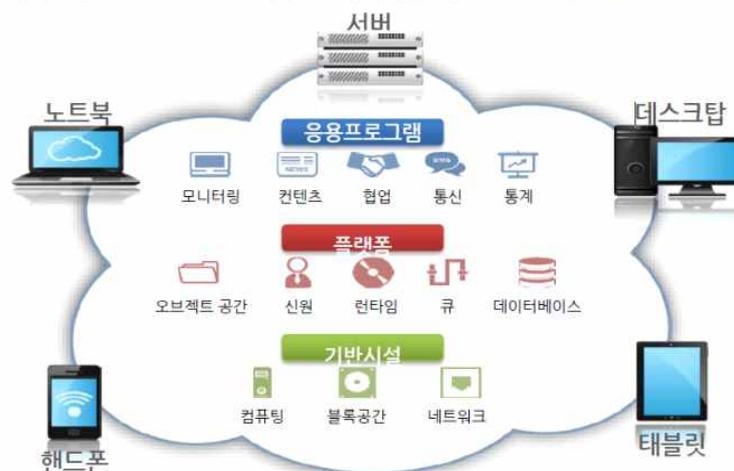
▶▶ 다양한 의료기관에의 의료정보시스템 공급

동사는 의료기관, 약국 등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형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검증된 솔루션인 'bitnix HIS' 로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최신 IT 기술 기반으로 경험, 전문 지식, 독자적 설계 방식을 적용하여 의료기관에 적합한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형 병원 및 요양 병원에 적용 가능한 패키지 솔루션을 개발하여 기존의 예산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한 기술 차별화

동사는 독자적인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을 통해 기술 차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 별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중소병원은 2017년 하반기 출시한 클라우드 기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클레머(CLEMR)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bitnix Cloud를 2020년 초 정식 출시했다.

그림 7. 비트컴퓨터의 주력 클라우드 패키지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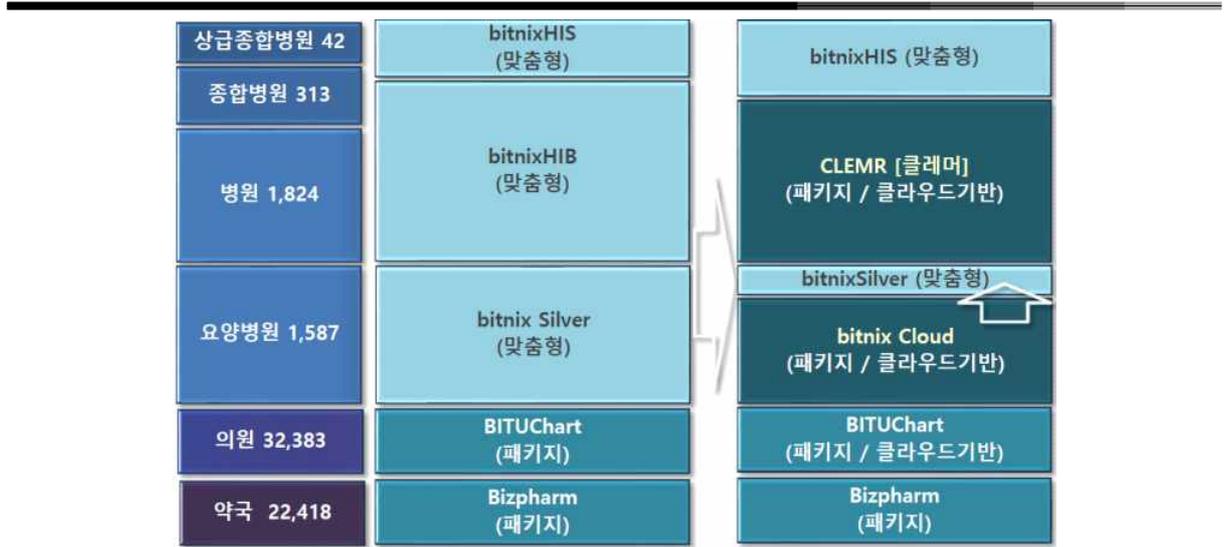


* 출처 : IR 자료(2020)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자차트 프로그램인 비트U차트를 시작으로 BIT Lab(온라인 수탁검사서비스), BIT CRM(고객관계관리프로그램), BIT Cast(환자대기실 디지털방송시스템), Dr.VIEW(의료영상관리시스템), bitnixChart for Clinic(영상EMR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2020년 8월 국내 최초의 클라우드 기반 PHR 플랫폼 '비트플러스'를 출시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장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밖에 약품정보 콘텐츠 BIT

DrugInfo, 보험청구 사전점검 서비스 Medigent등 전문적인 의료 콘텐츠와 S/W가 결합된 솔루션과 서비스는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매년 고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림 8. 비트컴퓨터의 의료기관별 타겟 제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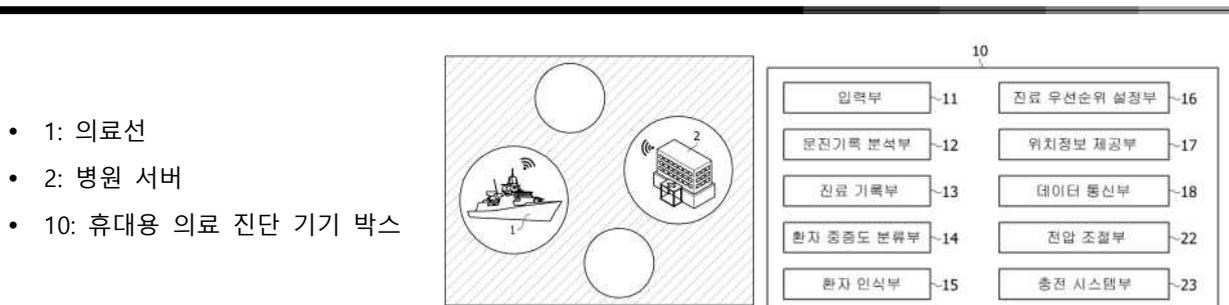


* 출처 : IR 자료(2020)

▶▶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핵심 특허 보유

동사는 의료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최근 핵심 특허 기술로 ‘휴대용 의료 진단기기 박스’ (10-2004370)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문진 기록 분석 결과 및 상기 진료지역별 진료기록을 이용하여 질병 발생 여부 및 중증도를 판단하는 환자 중증도 분류부를 포함하는 휴대용 의료 진단기기 박스를 제공한다.

그림 9. 휴대용 의료 진단기기 박스 대표도(10-2004310)



* 출처 : 키프리스

■ SWOT 분석

그림 10. SWOT 분석



* 출처 : NICE평가정보(주)

▶▶ (Strong Point) 높은 기술력 및 안정성 따른 기술 경쟁력 확보

동사는 국내 벤처기업 및 S/W 전문회사 1호 등 굴지의 IT 기업으로, S/W 기술력 기반으로 의료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나타내고 있다. 성장성이 높은 헬스케어 시장의 선점 및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 의료정보서비스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규모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통해 고객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동사의 클라우드 패키지는 의료기관의 초기 투자 비용 절감 등 기관 운영 효율 및 수익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통한 IT 기반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 (Opportunity Point)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정보서비스산업

의료정보서비스산업은 국민소득 증대, 평균수명 증가 등 개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의료소비 증가와 함께 관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한편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는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 사회문화를 만들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 분야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동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진료 정보 및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시스템, 원격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로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 (Weakness Point) 국가 정책 미흡에 따른 시장 확대 저해

의료정보서비스산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의료정보활용 등에 대한 규제로 인해 시장 성장이 더딘 상황이다. 향후 관련 의료법 개정 여부에 따라 시장의 성장폭이 다르게 전망될 것으로 사료된다.

▶▶ (Threat Point) 시장 내 진입 및 입지 강화를 위한 움직임

기존의 기술력을 보유한 주요 기업 외에 이종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헬스케어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저가의 기술도 난립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 세계 주요 국가 및 기업에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입지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및 기술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전략에 대한 지속적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IV. 재무분석

주력 사업 바탕으로 꾸준한 매출 실적 유지

동사의 주요 사업인 의료정보 사업을 통해 300억 원대의 꾸준한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출원가율은 70% 초반을 확보하고 있어 매년 양호한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 주력 사업인 의료정보사업 바탕으로 300억대 매출 유지

동사는 주요 사업은 의료정보사업(의료정보시스템, 디지털 헬스케어)과 IT 교육사업, 임대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력 사업인 의료정보사업은 2020년 기준 전체 매출의 71.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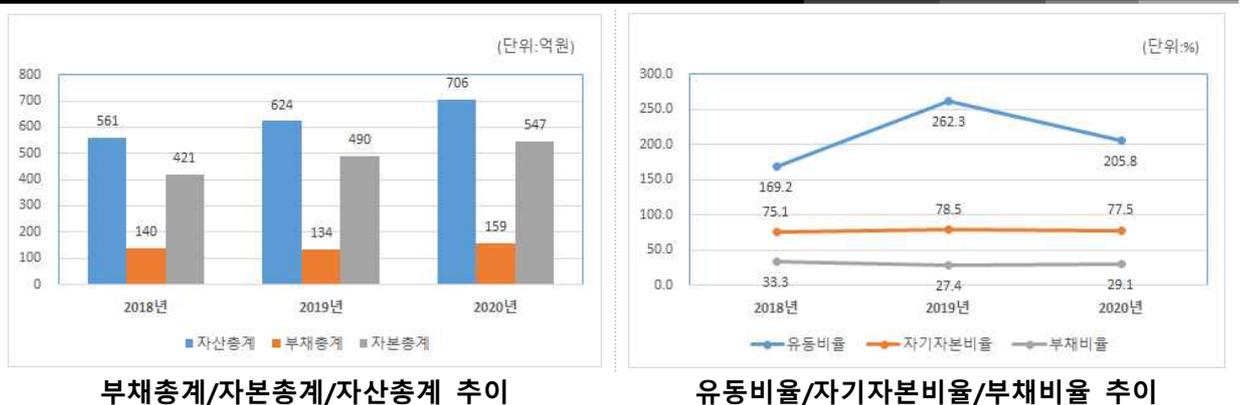
2020년은 의료정보사업 부문 매출이 267억 원(-1.0%, YoY), IT 교육사업 부문의 매출은 90억 원(-4.9%, YoY)으로 감소하였으나 임대사업 부문 매출이 16억 원(+67.3%, YoY)으로 증가하여 연결기준 총매출은 373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매출액은 0.3%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그림 11. 동사 연간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그림 12. 동사 연간 재무상태표 분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 양호한 수익성 유지

동사의 최근 3개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2018년 328억 원(+2.7%, YoY), 2019년 374억 원(+14.1%, YoY), 2020년 373억 원(-0.3%, YoY)을 기록하였으며, 300억 원대의 꾸준한 매출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3개년 영업이익은 2018년 -22억 원, 2019년 61억 원, 2020년 55억 원으로 수주 프로젝트의 원가 상승으로 인해 손실이 났던 2018년을 제외하고는 매출원가율은 7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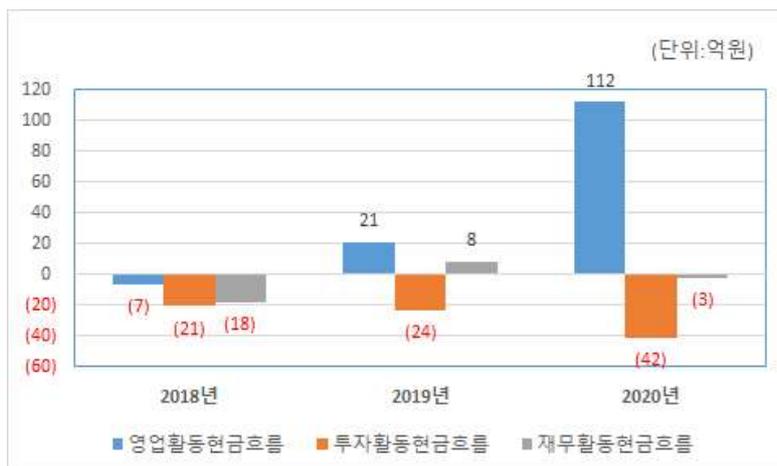
■ 이익창출력 기반 양호한 재무구조 유지

양호한 이익창출력을 기반으로 2020년 말 기준 순자산 규모는 547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29.1%, 자기자본비율 77.5%, 유동비율 205.8%로 양호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2020년 말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보유액이 149억 원으로 채무 상환능력은 충분한 수준이다.

■ 영업활동현금흐름 개선

2020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미수금과 매출채권 회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개선되어 112억 원이 유입되었다.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으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업체인 (주)자인컴의 지분 취득, (주)포닥터의 의료정보사업 양수 등에 투자활동에 사용한 42억 원을 충당하였으며, 잉여 현금은 축적하여 기초에 21억 원이었던 현금성 자산이 기말에는 8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13.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의료정보 S/W 개발업체 인수를 통한 국내·외 시장경쟁력 강화

동사는 의료정보서비스사업을 통해 내수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왔으며, 관련 업체 인수를 통해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 의료정보 S/W 개발업체 자인컴 인수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2020년 6월 동사는 의료정보 관리·S/W 개발업체 자인컴을 인수했다. 자인컴은 2001년 설립된 기업으로, 병원 등 약 200여개 의료기관에 EMR 등 의료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성장해왔다. 특히 자인컴의 성장은 주목할 만하다. 2016년 약 27.6억 원 규모에서 2019년 37.1억 원으로 약 134% 성장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016년 1.6억 원에서 2019년 5억 원으로 312%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던 자인컴의 인수는 동사의 시장점유율 및 지배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스트 COVID-19 시대에 닥칠 급격한 의료산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헬스케어 시장 재편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4. 자인컴 연도별 주요 손익계산서(단위 : 백만 원)



* 출처 : risk manager no.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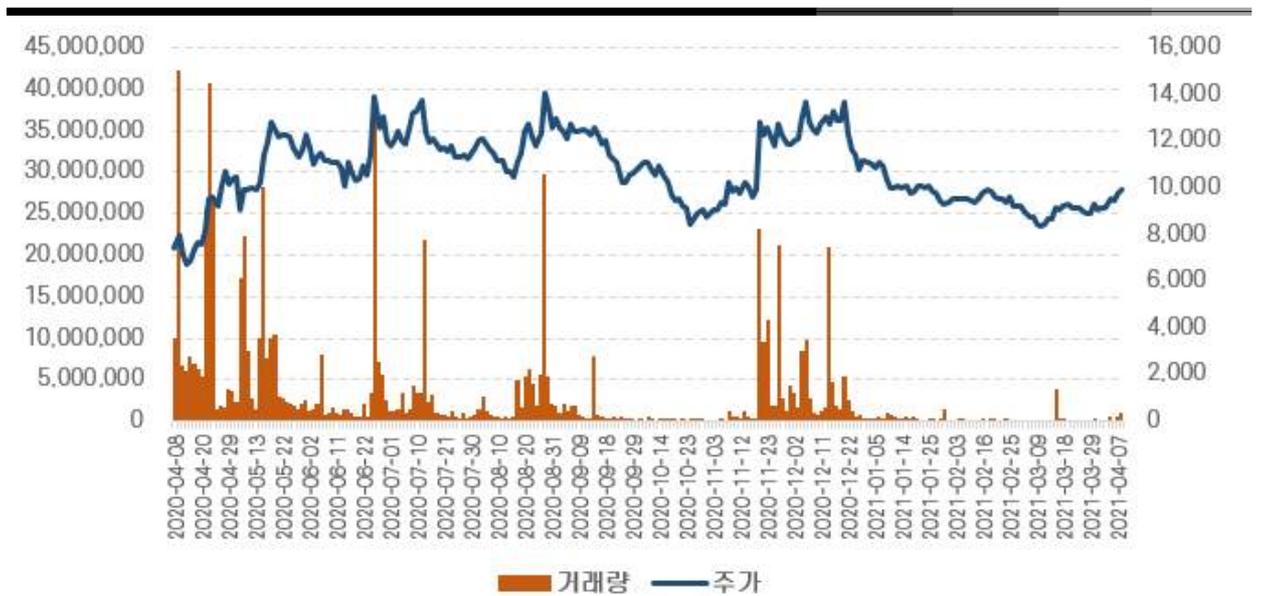
■ 클라우드 패키지의 수익성 개선 전망

동사가 출시한 클라우드 기반의 EMR 시스템인 클레머는 2017년 출시 후, 2019년 대형병원 산하 지역병원 2개소, 2020년 6개소 이상에 구축을 진행했다. 의료 클라우드 사업의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5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병원이 향후 정밀의료, 예측의료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 및 클라우드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도입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해당 시장이 초기 단계로 실적이 미미하지만, 향후 적용병원 증가 및 클라우드 구축 효율성이 증가할 경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증권사 투자 의견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6개월 내 발간 보고서 없음 			

■ 시장 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1.04.)